

## 특허청,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 개최

- 한국이 의장국 맡아 싱가포르에서 상표선진5개국(TM5) 중간회의 개최 -
- 특허청, 신규 협력과제로 ‘가상공간에서의 상표’ 제안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지난 15일(월) 10시부터 17시(현지시간)까지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‘상표선진5개국(TM5)\* 중간회의’를 개최하고, 상표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\* TM5(Trade Mark 5): 2012년 출범한 상표분야 주요 5개국(한국·미국·일본·중국·유럽연합) 협의체

### 【 상표선진5개국(TM5) 회의 】

전 세계 상표 출원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5개 특허청이 상표분야 국제 규범의 형성 및 조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회의이다.

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2023년 상표선진5개국(TM5) 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되었으며,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상표선진5개국(TM5) 실무회의(6.15~16.), 상표선진5개국(TM5) 연례 회의(9.11~12.)까지 총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.

이번 회의에는 5개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가 참가하여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, 악의적 출원 방지방안 등 15개 협력과제\*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했다. 특허청은 ‘가상공간 (메타버스)’ 관련 상표출원의 증가세에 힘입어 ‘가상공간에서의 상표에 대한 연구’를 신규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.

또한, 특허청은 상표분야 최대 민간협회인 국제상표협회(INTA)의 연례회의(5.16~20.)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△ 상표선진5개국(TM5) 상표 사용자 세미나 (5.17.)를 개최하고 △ 한국 상표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.

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가상공간에서의 상표의 사용,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상표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기에 한국이 상표선진5개국(TM5) 의장국을 맡은 것은 뜻깊은 일” 이라면서, “9월 상표선진5개국(TM5) 연례 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상표분야 국제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영택 (042-481-5265)
		담당자	사무관	김인규 (042-481-3596)

